

# 시설아동과 원가족 상호작용 프로그램 평가 연구

김성천\*, 장혜림\*\*  
중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 A Study Evaluating a Program for the Interaction between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and their Original Families

Sung-Chun Kim\*, Hae-Lim Chang\*\*  
Dep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Korea\*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Jangsin University, Kore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아동과 원가족(연고자) 상호작용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평가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다. 서울과 청주에 위치한 두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참여자인 시설아동과 부모, 실무자를 대상으로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과정평가에 나타난 문제점은 원가족(연고자) 참여자 모집과 유지였다. 만족도를 살펴보니,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특성상 다양한 체험을 공유하거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고, 관계증진에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두 시설 모두 부모의 가족관계 변화정도가 사전보다 사후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질적평가를 통해 단순히 일회성 활동 프로그램보다 캠프나 일상 생활에서 함께 하지 못했던 활동을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주제어 : 아동양육시설, 상호작용, 원가족 프로그램, 과정평가, 성과평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gram for enhancing the interaction capacity between the child care institutions and the original family (associate) and propose a program suitable for the child care institutions. The program was conducted at two institution located in Seoul and Cheongju, and the process evaluation and outcome evaluation were conducted. First,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evaluation were recruiting and maintaining participants. As a result of the satisfaction of each program,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sharing the various experiences or sharing the small daily life was high, and it was positive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Parents showed improvement in the post -test rather than the pre-test. Through qualitative assessment, positive evaluations were made in programs where the family participated in activities that could not be done together in the camp or everyday life, rather than just one-time activity programs.

**Key Words** : Institutional care, Interaction, Original Family Programs, Process Evaluation, Outcome Evaluation

\*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협회의 2016년 시설아동치료재활사업 결과의 일부를 활용한 것임

Received 23 May 2017, Revised 23 June 2017

Accepted 20 July 2017, Published 28 July 2017

Corresponding Author: Hae-Lim Chang

(Seoul Jangsin University)

Email: hlchang@sjs.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이라 명명한다. 2015년 현재 한국의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4,503명으로 [1],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빈곤, 실직, 학대 등의 이유로 2,443명(54.25%), 미혼모아동 930명(20.65%)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아동의 시설입소사유가 과거에는 부모의 사후 부재였지만 현재는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보호 아동의 부모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비율이 약 80%이상 보고되고 있는 바[2], 일차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시설에서 갖게 되는 책임 중 하나는 시설아동과 원가족이 어떻게 하면 분리된 상황에 관한 정신적 외상(trauma)을 최소화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가급적 유지하게 도울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시설아동의 적응과 건강한 발달일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은 주거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다[3,4,5]. 하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원가족과 접촉하는 아동은 시설 생활 적응과 퇴소 후 자립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이들은 시설퇴소 이후에도 원가족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진로 준비와 퇴소 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 또 다른 연구는 아동과 원가족과의 접촉에서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질이 중요함을 보고하면서 시설아동에게 있어 원가족의 존재 자체도 의미 있지만 아동과 원가족간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9,10]. 하지만 현실은 원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고, 현장에서도 원가족과 접촉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설이란 장을 통해 아동-원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아동과 원가족의 끊어지거나 느슨한 관계를 이어줌과 동시에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필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시설아동의 적응과 적절한 발달을 위해 중요한 시설과 원가족의 긴밀한 협조 관계는 시설과 원가족 간 연계망 형성이 부족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11].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협회는 2014년도에 시설아동과 원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한 '아동-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원가족 간의 관계가 증진되고 애착이 높아졌다는 성과가 보고되어 2015년도에는 보다 정교화 된 '아동-가족 간 상호작용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했기에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 아동과 원가족(연고자)<sup>1)</sup> 상호작용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실시하고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현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에 적합한 원가족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아동과 원가족 프로그램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둘째,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가?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가족관계, 애착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한다. 둘째, 아동과 원가족,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분석한다.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정된 두 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원가족이다. 두 시설은 서울과 충청에 위치하고 있다. 참여가족의 구성과 아동의 성별, 연령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1>). 프로그램별 참여가족의 수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평균 4가족이 참여하였다. 둘째, 두 시설의 실무자와 생활지도원이다. A시설의 경우 10년 경력의 실무자와 14년 경력의 생활지도원이 면담에 참여하였고(모두 여성), B시설의 경우 4년 경력의 실무자와 6년, 9년, 14년 경력의 생활지도원이 면담에 참여하였다(모두 남성).

1) 본 연구에서 원가족의 범위는 연고자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이후 제시된 원가족은 연고자까지 포함한 표현임을 밝히는 바이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 institution child and their family	B institution child and their family
boy 17, girl 16, boy 14, / father	girl 12, girl 6 / mother, father
boy 12, boy 8 / aunt	boy 5, boy 6 / mother, father
boy 9 / aunt	boy 11, girl 9, 6 / mother
boy 18, boy 14/ father	boy 12, girl 10 / mother, father
girl 8 / father, grandmother	boy 16, boy 10, girl 13 / mother
boy 11 / grandfather	boy 11 / father
boy 9 / father	boy 16 / mother
boy 11 /grandmother	girl 12 / father
	boy 13 / mother, father
	girl 7 / mother

## 2.2 자료분석방법

프로그램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고 기간 동안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과정평가의 기준은 첫째, 참여자 모집방법의 적절성 둘째, 서비스 대상자의 적격성 셋째,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차원에서 성과와 만족도 넷째, 프로그램의 종결과 평가, 사후관리의 적절성이다.

성과평가는 가족관계와 애착정도를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관계는 양옥경과 이민영(2003)[12]이 개발한 『가족관계척도』 중 정서친밀, 수용존중과 관련된 15문항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아동과 부모의 애착정도는 정선옥(2004)[13]의 연구에서 제시한 애착유형척도를 활용하였다. 양적조사 결과는 기술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매 회기 프로그램 종결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원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참여한 아동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이다.

## 2.3 원가족 상호작용 프로그램 내용

두 시설에서 수행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세부내용은 동일하지 않으나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상담과 치료, 가족캠프와 같은 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Table 2> Program introduction

A institution program	contents
Happy time with animal and family	Animal-mediated interaction program
Family art therapy	Storytelling with pictures
Buy couple costume	Purchase clothes with family
Family play therapy	Family therapy with various plays
Making pottery	Visit the Icheon pottery making place and make pottery
Family music therapy	Family therapy using songs and instruments
Interview with a life instructor	Interview with a life instructor
Making dishes for the family	Making sandwiches
B institution program	contents
Parents' self-help group, Great Supporters	Set family goals, create time box
Parent daily lecturer	Life instructor experience, parent daily lecturer
Family camp	Recreation, family talent show, candle rituals
Family therapy	Various activities such as outing, making a family newspaper

## 3. 연구결과

### 3.1 과정평가 결과

과정평가를 통해 참여자 모집과 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A시설의 참여자 모집은 시설아동의 원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여 담당자가 전화로 프로그램 설명과 참여 독려를 하면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살펴본 결과, 학대가정,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하여 가족을 찾을 수 없는 아동은 배제하였고, 원가족 혹은 혈연관계가 있는 연고자(고모, 큰 어머니, 삼촌, 이모 등)로 한정하여 참여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소에 아동과 정기적인 교류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제공 측면의 모니터링 결과, 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담당생활지도원 면담)와 활동(동물과 함께 하는 해피타임, 커플룩을 뽑내요, 원가족 방문, 도자기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으로 진행되었다. 총 수행인력은 프로그램 담당자 1명, 진행자 1명, 보조인력 2~3명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A시설은 프로그

램 준비단계에서 구상한 계획안에 맞춰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주로 치료와 활동이 접목된 형태였고,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평균 참여가족 수는 6.6가족으로 목표로 설정한 5가족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들에 의한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가족이 당일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가족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자가 직접 평가한 만족도를 보면 도자기 만들기, 커플의상 구입, 가족을 위한 요리 만들기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면,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거나 소소한 일상을 경험하는 활동이었는데, 이는 그 동안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함으로써 아동-원가족이 만족하고 관계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된다.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원가족 간의 관계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동물-가족과 함께 하는 해피타임(아동,가족 사후에 1.7점 상승)'과 '가족을 위한 요리 만들기(아동1.0, 가족0.8 사후 상승)'가 가장 큰 관계변화 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적 측면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원가족에게 아동의 변화 및 특이사항을 전달하며 SNS를 통해 가족에게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게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시설의 참여자 모집방법은 원가족의 가정방문 및 우선연락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참여가족에게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고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적격성 판정은 원가족이 있는 아동 중에서 기존 원가족 프로그램 참여율, 시설과의 교류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 등을 고려하였다. 프로그램은 치료(가족치료 총 4회기)와 활동(부모자조모임, 위대한서포터즈, 일일 생활지도원 체험, 부모 일일강사, 가족캠프)등으로 이루어졌고, 수행인력은 프로그램 담당자 1명, 진행자 1명, 보조인력 2~3명 등이었다. 총 6회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평균 참여 인원은 아동 13명, 원가족 7명이었다. B시설의 원가족 프로그램은 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40%), 지역 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60%)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강점이다. 참여자가 직접 평가한 만족도를 보면, 부모 자조모임· 위대한 서포터즈가 가장 높았고, 가족캠프·가

족치료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한 치료 프로그램보다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원가족 간의 관계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생활지도원 체험·부모 일일강사(가족 2점 상승, 아동 유지), 부모 자조모임·위대한 서포터즈(가족 1.5, 아동 1점 상승), 가족캠프·가족치료(가족 0.3점, 아동 1.2점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원체험·부모 일일강사 프로그램은 부모가 시설에 찾아와 아동과 원가족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도운 프로그램이다. 사후관리를 살펴본 결과, 기초적인 원가족 현황과약과 상담, 가정방문 등 원에서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2 성과평가 결과

가족관계와 애착정도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A시설은 가족관계(3.49,±.51→3.83,±.57점, 0.34점↑)와 애착정도(4.28,±.65점→4.41,±.58점, 0.13점↑)에서 사후조사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은 가족관계(3.84,±.78점→3.54,±.42점,0.3점↓)와 애착정도(4.04,±.63점→3.90,±.60점 0.14점↓) 모두 사후조사에서 점수가 낮아졌다(<Table 3>).

<Table 3> A Institution outcome evaluation

scale	parent (mean,SD)		child (mean,SD)	
	pre test	post test	pre test	post test
family relation	3.49 (.51)	3.83 (.57)	3.84 (.78)	3.54 (.42)
attachment	4.28 (.65)	4.41 (.58)	4.04 (.63)	3.90 (.60)

인터뷰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활동과 체험이 접목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원가족들은 무엇보다 아동과 함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점에 감사하고 있었다.

한편, B시설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값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관계(3.35,±.99점→3.65점,±.86,0.3점↑)는 사후에 높아졌으나 애착정도(3.88,±1.24점→3.77,±1.17점, 0.11점↓)는 사후조사에서 낮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아동은 가족관계(3.37,±1.09점→4.13,±1.07점, 0.76점↑)와 애

착정도(3.83,±1.01점→4.40,±.79점,0.57점↑)는 모두 사후 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B Institution outcome evaluation

scale	parent		child	
	pre test	post test	pre test	post test
family relation	3.35 (.99)	3.65 (.86)	3.37 (1.09)	4.13 (1.07)
attachment	3.88 (1.24)	3.77 (1.17)	3.83 (1.01)	4.40 (.79)

인터뷰 분석 결과, 참여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족캠프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회기가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준비 시간을 충분히 갖고, 프로그램 담당자와 원가족이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쉬운 점으로 프로그램 시간이 다소 촉박하여 여유를 갖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 4. 결론 및 제언

원가족(연고자)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원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원가족(연고자)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될 필요가 있다. 시설 아동에게 원가족은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단순히 접촉빈도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14]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은 매우 필요하다. 가족은 전 생애적으로 중요하지만 [15] 특히 아동청소년기에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16][17]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 아동과 원가족은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는 이유만으로 힘을 얻고, 시설 및 학교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가족(연고자)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범위에 대한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는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1인 가구, 혈연이 아닌 지인들로 구성된 가족공동체 마을,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한다 [18] 따라서 시설아동의 가족은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의 범위

를 벗어나 연고자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원가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의 상황에 맞는 원가족(연고자)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아동시설은 원가족(연고자) 프로그램은 시설마다 중요성을 달리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원가족(연고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설 상황에 맞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협력할 수 있게 [19] 단계별 적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설 차원에서의 원가족(연고자) 프로그램 TFT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원가족(연고자) 프로그램은 1명의 실무자가 기획부터 홍보 및 참여 독려,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지만 원가족(연고자)과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한명의 담당자가 원가족(연고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은 많은 소진과 비효율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내에 TFT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원가족 참여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두 시설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보고하였다는 점이다.

#### ACKNOWLEDGMENTS

This article was largely part of the research report titled “the Rehabilitation Project for Rehabilitation of Facilities Children in 2016”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n Child Welfare Association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Needs and Action of Protected Children. 2016.
- [2] J. S. Kwon, S. W. Ju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Adults after Leaving the Care of the Institution”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61, No. 3, pp. 229-253. 2009.
- [3] S. J. Leathers,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2000.

- [4] A Dworsky, M. E. Courtney, "Homelessness and the transition from foster care to adulthood." *Child Welfare*, Vol. 88, No. 4, pp.23-56. 2009.
- [5] H. A. Kang, C. R. No, J. S. Jun, I. J. Chung, "The effects of adverse event experiences on depression and anxiety and control factors", *Youth Studies*, Vol. 19, No. 3, pp. 193-222. 2012.
- [6] J. H. Jung, I. J. Chung,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drift of children in nee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39, pp.171-212. 2012.
- [7] J. S. Kwon, "Child-rearing facilities Cultural resources for life after leaving youth",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11, No. 1, pp.1-29. 2007.
- [8] H. R. No, M. W. Kim, S. Y. Cho, "Child Welfare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on and Integration", Seoul: Hakjisa, 2015.
- [9] S. W. Jung, " Factors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Facility Protection "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2002.
- [10] S. A. Kim, "The Effect of the Family Relationship Experience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MSW. dissertations, Chung Ang University 2015.
- [11] K. B. Kim, "Child and Family: An Integrated Approach". Seoul: Hanwol Academy, 2008.
- [12] O. K. Yang, M. Y. Lee, "A validity study for using family relation scal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54, pp. 5-33. 2003.
- [13] S. W. Jung, " A study of attachment typ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of facility children"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8, No. 1, pp.1-15. 2004.
- [14] H. M. Le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Original Family Contact-Oriented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in Child Care Institutions". *Transactional Analysis and Psychosocial Therapy*. Vol. 8, No.1, pp. 85-112. 2011.
- [15] Mi-Hye Kim, Je-Ran Chun, Seong-Ae Hong, Factors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Influencing Old Patient's Decision of Advance Directives Attitud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6, No. 4, 123-129, 2016.
- [16] Mi-Seob Oh,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197-203, 2015.
- [17] K. S. Choi, Y. H. Kim, S. C. Kim, J. H. Kim, J. Y. Park, J. H. Yoon, *Understanding of Family Welfare*. Seoul: Human and Welfare. 2006.
- [18] Chun-Ok Jang, "A Study on Convergence Family Function and parameter validation fusion of youth protection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121-126. 2015,
- [19] Sun-Ae Kwon, Yu-Mi Jan, "Theoretical study to utility of concept mapping for expected outcome draw of multi-organizations network : Focusing on integrated case management activities of communit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5, No. 1 pp.7-11, 2015.

김 성 춘(Kim, Sung Chun)



- 1984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2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 E-Mail : sc132@cau.ac.kr

장 혜 림(Chang, Hae Lim)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박통합 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BK박사후과정 연구원
- 2014년 3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hlchang@sjs.ac.kr